



## 관내 동향

### □ 사천시, 경남도의회 의장단과 항공우주청 관련 현안 공유

- 박동식 사천시장은 1일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경남도의회 의장단 초청 간담회를 갖고 사천의 항공·우주산업 강점을 소개하고 항공우주청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.
- 이번 간담회는 항공우주청 사천 신설이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도의회와 추진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.
- 의장단은 항공우주청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경남도, 경남도의회, 사천시가 공동협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.
- 또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항공·우주산업 집중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.
- 박시장은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.

### □ 사천시,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 실무 TF팀 회의 개최

- 사천시는 7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‘항공우주청 사천 설치 실무 TF팀 회의’를 개최했다.
- 회의는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.
- 특히 임시청사 추가 검토사항과 교통·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.
- 박동식 사천시장은 “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도지사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”며 “모든 위원들이 항공우주청 조기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## □ 박동식 사천시장, 에어로스페이스 발전 세미나 참석

- 박동식 사천시장이 지난 7월 27일 하영제, 신원식, 홍석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‘에어로스페이스 발전 세미나’에 참석했다.
- 세미나에는 하영제 국회의원,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해 박완수 도지사와 경남도·사천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‘뉴 스페이스 시대에 따른 항공우주력 건설 방향’을 주제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- 이번 세미나는 우주력 강화와 우주안전, 국방 우주 기술 및 인력양성, 육군우주력 발전방향, 민군협력의 중요성, 경남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.
-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장은 “위성개발과 제작, 시험평가 까지 일괄 이뤄질 수 있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여 세계적인 항공우주클러스터로 육성하면 관련 산업과 국가균형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- 한편 세미나 후 박시장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만나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육성 협조를 당부했다.

## □ KAI, 폴란드에 FA-50 48대 수출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폴란드와 FA-50 48대를 30억달러(약3조9천억원)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.
- 본 계약은 최초의 국내 항공기 완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이며 물량과 가격도 역대 최대 규모다.
- KAI는 앞으로 폴란드 현지에 FA-50 MRO(항공정비) 센터를 설립하고 현지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또한 폴란드 공군의 FA-50을 활용한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도 추진한다.
- KAI는 이번 계약은 공동 협력의 시작이며 향후 FA-50 1천대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폴란드가 KF-21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
## □ 아스트, 에어버스D&S와 MOU 체결

- 항공기 정밀구조물 제작업체 아스트가 에어버스 방위산업 계열사 에어버스 D&S(Defence and Space)와 에어버스코리아 본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.
- 아스트는 올해 4월 에어버스의 1차 협력사로 선정되었으며, 이번 MOU를 통해 과거 단품만 납품하던 것에서 상위 단계인 구조물을 납품하게 되었다.
- 아스트는 “최근 항공사들이 많은 운항 노선을 재개하고 항공기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

## 도내 동향

### □ 경남중기청, 10월에 항공·방산 미국 무역사절단 파견

- 경남중소벤처기업청(경남중기청)은 첨단항공·방위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.C.와 헨츠빌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.
- 본 사업은 경남중기청과 창원산업진흥원이 협업하여 경남지역 항공·방산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한다.
- 이번 사절단은 관내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출잠재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10개사를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파견할 예정이다.
- 경남중기청은 “항공·방산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지만 경남의 지역특화 산업인 만큼 세계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UAM, 드론과 같은 신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## □ 도내 항공업체, 판보로에어쇼에서 2,100만 달러 수출 상담

- 경남도, 경남테크노파크, 도내 항공기업 8개사가 영국 판보로에어쇼에 참가해 2100만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.
- 경남도관에 참여한 미래항공, 세우항공, 씨엔리,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, 한국복합소재, 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, 이엠코리아, 동화에이씨엠 등 도내 기업은 해외바이어와 47건의 수출 상담을 가졌다.
- 상담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해외 클러스터, 코트라 현지 무역관 등과 협의하여 사전 매칭하여 진행되었다.
- 또한 멕시코 치와와 클러스터와 코트라 멕시코무역관, 경남항공산업 지원단의 업무협조로 상호 교류에 물꼬를 텄다.
- 한편 판보로에어쇼는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로 인정받는 항공우주 전시회로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었다.

## □ 경남 혁신네트워크 교육분과협의회 및 기술 세미나 개최

- 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경남진주 강소특구 혁신네트워크 교육분과협의회 및 기술(교육)세미나를 개최했다.
- 세미나에는 진주시와 사천시를 비롯해 산·학·연·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여 강소특구의 특화분야인 항공우주부품·소재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.
- 이에 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세미나 개최와 강소특구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, 항공우주 특성화고교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채널 구축 등이 진행되었다.
- 한편 혁신네트워크 육성사업은 경남진주강소특구 사업의 하나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과 항공·우주산업 관련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.

## □ ANH, 국내 첫 부품등제작자증명 부품 대한항공에 납품

- 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(ANH)가 대한항공에 컵 홀더를 초도 납품했다.
- 이는 국내 업체가 Part 25급(50인승 이상) 민수항공기 부품에 대한 설계·생산·인증까지 전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첫 사례다.
- ANH는 2021년부터 민수항공기 이코노미석 컵홀더 부품을 대상으로 부품등제작자증명 인증을 추진하여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.
- 부품등제작자증명(PMA)은 부품 원제작자가 아닌자가 원제품과 동일한 성능·품질의 대체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.
- 국내의 항공부품은 대부분 전량 수입하고 있으나 추후 국산화 인증 및 보급을 통해 항공 부품 제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

## 국내 동향

### □ 한국 최초 달 탐사선 ‘다누리’ 발사 성공

- 8월 5일 우주 비행을 시작한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 성공 후 궤적 수정에도 성공했다.
- 다누리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된 후 분리되어 정해진 궤적을 따라 이동 중이다.
- 다누리는 태양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지구 쪽으로 전환해 달 궤적에 안착하는 ‘탄도형 달 전이(BLT)’ 궤적이라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궤적 수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- 다누리의 주요 임무는 궤도 설계, 심우주 항행, 고추력 추진계, 우주선 간 통신에 쓰이는 안테나 등과 관련된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.
- 다누리는 5개월간 궤적 보정 기동을 수차례 진행한 뒤 오는 12월말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진입한 뒤 임무 수행을 시작할 예정이다.

## □ 블랙이글스, 국제 에어쇼 무대에서 대활약

-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무대에서 실력과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.
- 블랙이글스는 7월 17일 영국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군사에어쇼인 '리아트(RIAT) 에어쇼'에 참가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했다.
- 이어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'판보로에어쇼'와 FA-50 수출 계약을 맺은 폴란드에 참가해 에어쇼를 선보였다.
- 또한 8월초 이집트에서 열린 '피라미드 에어쇼 2022'에 참가해 외국군 최초로 피라미드 상공 에어쇼를 펼쳤다.
- 특히 이집트는 피라미드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이집트 공군 외 외국군의 에어쇼를 허가한 적이 없다.
- 한편 아프리카·중동의 군사 대국인 이집트는 내년 선정을 목표로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다.
- 블랙이글스는 앞으로도 국제 에어쇼에 참가해 한국 무기체계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.

## □ 국토부-국방부, 드론 및 UAM 발전 위해 맞손

- 국토부와 국방부가 드론 및 UAM으로 대표되는 미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- 주요 협약내용은 드론과 UAM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, UAM·K-드론시스템 및 국방 수송드론·통합 관제체계의 개발·발전을 위한 정책수립, 신기술 실증사업 참여 및 기술교류 협력 등이다.
-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필요시 분야별 실무협약서를 체결하고, 세미나·워크숍 공동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- 또한 드론과 UAM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은 향후 국방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, 최대 수요처인 국방부가 초기시장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뜻을 모았다.

## □ 현대차·기아, 달 표면 탐사 모빌리티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

- 현대차·기아가 달 표면 탐사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국내 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했다.
- 이번 협약에는 한국천문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원자력연구원,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했다.
- 협의체는 달 탐사 모빌리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달에서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.
- 달 표면 탐사 모빌리티 개발에는 과학 탐사 장비, 우주 통신 기능 등 다양한 기술과 우주방사선 차폐나 극한 우주환경을 극복하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.
- 협의체는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통해 우주시대 원천기술을 공동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.



## 해외 동향

## □ 에어버스 제피르S, 세계 최장 무인 기체 비행 기록 세워

- 에어버스에서 만든 태양광 무인항공기 ‘에어버스 제피르S’가 26일 동안 멈추지 않고 비행하며 세계 최장 무인 기체 비행 기록을 세웠다.
- 종전 기록은 2018년 에어버스가 세운 25일이었으며 스스로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.
- 제피르S는 6월 15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이륙해 멕시코만과 카리브해를 거쳐 벨리즈까지 비행한 후 미국으로 돌아왔다.
- 제피르S는 높은 고도의 비행에 최적화되어 여객기와 악천후를 피할 수 있다.
- 또한 기체에 탑재된 태양전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 멈추지 않고 날 수 있다.
- 미국 육군은 제피르S를 군사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, 궤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위성과 달리 지구에 불러들일 수 있어 위성 대체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

## □ 폭스바겐, UAM 시제기 개발 성공

- 폭스바겐이 도심항공모빌리티(UAM) 사업을 위한 전기 수직 이착륙기 (eVTOL) 시제기 개발에 성공했다.
- 호랑이해를 기념해 ‘플라잉 타이거(Flying Tiger)’라는 애칭이 붙은 이 기체는 최대 4명의 승객을 태우고 200km를 비행할 수 있다.
- 폭스바겐은 중국의 에어택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2020년부터 중국에서 UAM 프로젝트를 시작했다.
- 폭스바겐은 올해부터 시범 비행에 돌입하며 VIP 공항 셔틀서비스에 우선 투입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인증 획득에 나설 예정이다.

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일 | 2022. 8. 11.(목) | 보고일 | 2022. 8. 12.(금)   |
| 부서명 |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    | 담당자 | 최고봉(055-831-3470) |